

# 시온의 대구 스테이크 목표 마음이 청결한 자

대구 스테이크 부장  
권 찬태

**이** 곳 대구 지역에 회복된 복음이 전파된 지 20여 년 만에 대구 스테이크가 탄생된 것을 이 지역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구 스테이크를 훌륭하게 조직해 주신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님, 지역 대표인 한인상 장로님, 그리고 지금까지 대구 지방부를 보살펴 주신 박 병규 부산 선교부장님과 부산 선교부장을 역임한 이 호남 장로님께서 이곳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구 스테이크는 브래드포드 장로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방금 달걀의 껍질을 깨고 갓 태어난 햇병아리와 같은 연약한 스테이크입니다만 앞으로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따사로운 햇볕을 쬐이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싶습니다. 이곳에 첫 병아리가 태어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이제부터 어서 튼튼하게 자라 또 다른 햇병아리(스테이크)를 빨리 낳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자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의 첫 스테이크인 대구 스테이크를 시온의 대구 스테이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대하고도 영원한 계획을 목표로 세워 보았습니다.

첫째, 시온의 대구 스테이크는 "마음이 청결한 자"(교성 97:21)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참된 회개라는 세제(洗劑)를 자주 사용하여 마음을 청결케 하고 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시온의 대구 스테이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는 자(모세서 7:18)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롭게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시온이란 칭호를

받았던 에녹 백성들의 성품을 닮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시온의 대구 스테이크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어 온 땅에 불화가 일지 않는(니사 15절)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만 은사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채워지도록(모로 7:48)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은 복음의 계획과 교회 프로그램의 궁극의 목표로서 우리들을 청결케 하고 온전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시온의 대구 스테이크가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를 요약한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깃들게 하여 불화하지 않고 영원히 평화스럽게 사는 곳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가 완전하게 이룩되기란 실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끈으로 단합된 가운데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일의 시온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에녹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상의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을 탐구하면서 계명대로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알게 되고 함께 살면서 우정과 사랑을 나누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모범으로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에게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대구 스테이크 탄생



대구 스테이크 부장단: 앞열 좌: 박 원걸 제1보좌, 중앙: 권 찬태 스테이크 부장, 우: 권 정신 제2보좌, 뒷열 좌: 김 한기 형제, 중앙: 이 중찬 형제, 우: 최 진규 형제.

1983년 5월 8일 어버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대구 중앙 지부에서 가진 전반기 대구 지방 대회에서는 역사적인 행사가 이루어졌다.

대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지 20여 년 만에 대구 스테이크가 탄생된 것이다.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가 이 회를 감리하였으며 대구 스테이크를 조직하였고 부산, 광주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가 브래드포드 장로를 도왔다. 대구 스테이크 부장으로는 대구 지방부장으로 수고한 권 찬태 형제가 부름을 받았으며, 제1보좌에 박 원걸 형제, 제2보좌에 권 정신 형제, 집행 서기로는 이 중찬 형제, 서기에는 김 한기 형제 그리고 집행 서기 보조에는 최 진규 형제가 지시되었다.

한편 새로 임명된 고등 평의원과 감독 지부장은 다음과 같다.

신암 와드(배 성수 감독), 삼덕 와드(강 경구 감독), 중리 와드(이 승일 감독), 대명 와드(김 진호 감독), 대현 와드(박 재석 감독), 구미 지부(김 낙형 지부장), 포항 지부(황 은섭 지부장), 경주 지부(손

규열 선교사), 김천 지부(홍 용익 장로-복음 선교사), 고등 평의원으로는 최 갑수 형제, 김 병만 형제, 이 중석 형제, 심 재선 형제, 김 한규 형제, 김 동기 형제, 방 환규 형제, 조 찬래 형제, 강 회준 형제, 장 준희 형제, 그리고 이 중일 형제 이상 11명이 임명되었다.

권 찬태 대구 스테이크 부장은 서울에서는 잠실 와드 감독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북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권 찬태 대구 스테이크 부장 가족.



## 서울 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 141주년 기념 모임 성황

서울 서 스테이크는 3월 19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스테이크 센터에서 상호부조회 창립 141주년 기념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최 동현 부장이 감리하였으며, 사회는 상호부조회 회장인 장 숙녀 자매가 맡았다. 최 동현 부장은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바로 인식하고 영광의 자리를 위하여 부단히 자신을 연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1부 개회 및 영적 말씀 순서에 이어서 제2부에서는 와드, 지부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제3부 장기 자랑 시간에는 상도 와드의 탈춤 및 농악 놀이를 비롯하여, 노랑진 와드의 구약과 신약 여성에 관한 패션쇼, 독산 지부의 에어로빅 댄스, 난곡 지부의 중창, 시흥 와드와 봉천 와드 그리고 사당 와드의 연극 끝으로 안양 와드의 악단 연주 등으로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하였다. \*

## 서울 동, 동대문 스테이크 합동 말씀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와 동대문 스테이크는 지난 5월 14일 아론 신권 회복 154주년 기념 말씀 대회를 용두 와드에서 가졌다. 이날 연사로 선발된 청남, 청녀들은 준비된 말씀을 조리있게 발표하여 많은 회원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번 말씀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상계1 와드의 김 수진 자매, 우수상은 도봉 와드의 안 인숙 자매 장려상은 춘천 와드의 김 현정 자매가 각각 수상하였다. \*

## 3형제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함



앞줄: 천 낙숙 자매와 이 규선 자매 그리고 김 태석 감독의 두 아들  
뒷줄 왼쪽부터: 김 경석 형제, 김 태석 감독, 김 우석 형제, 막내인 김 형석 형제

한국인 복음 선교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한 집안에서 3형제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가족이 있다. 서울 동 스테이크 번동 와드 소속인 천 낙숙 자매가 화제의 주인공이다.

천 자매의 네 아들 중에서 2명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였고 막내인 김 형석 형제는 5월 16일 복음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현재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가장 늦게 개종한 장남인 김 경석 형제는 도봉 와드에서 집행 서기로 수고하였고, 차남인 김 태석 형제는 78년부터 80년까지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하였으며, 삼남인 김 우석 형제는 81년부터 83년 2월까지 역시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하였다. 4형제의 어머니인 천 자매는 오래 전에 남편을 사별하고 홀몸으로 4형제를 키우느라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으며 교회에서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장한 어머니로 서울시 표창을 받은 천 자매의 가족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모범적인 가족이다. \*

##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조직)



조 만구  
제1보좌

손 승은  
스테이크 부장

손 승주  
제2보좌

서울 동 스테이크는 지난 4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용두 와드에서 1983년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가 감리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동대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으며 손 승은 형제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한편 손 승은 형제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음에 따라 동 스테이크 부장단은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 제1보좌에 구 본동 형제 그리고 제2보좌에 김 병희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동대문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에는 조 만구 형제, 제2보좌에는 손 승주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이날 모임에서 번동 지부가 와드로 승

격되었으며 연사로 말씀한 모든 형제 자매는 선교 사업의 중요성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한편 동 스테이크와 동대문 스테이크 소속의 와드 지부의 감독, 지부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 스테이크의 미아 와드(이 우영 감독) 도봉 와드(서 정욱 감독) 상계1와드(전 재주 감독) 상계2와드(서 기원 감독) 번동 와드(임 수빈 감독) 장위 지부(여 운경 지부장) 삼선 지부(최 동일 지부장). 동대문 스테이크의 용두 와드(김 남영 감독) 면목 와드(신 성섭 감독) 태능 와드(이 병수 감독) 장안 와드(오 용근 감독) 춘천 와드(강 시영 감독) 이문 지부(최 상호 지부장) 교문 지부(고 흥만 지부장)

\*

## 특별 노변의 밤 서울 지역

어버이날인 5월 8일 오후 7시 서울 동스테이크 용두 와드에서는 서울 지역의 형제 자매들과 브리감 영 대학 민속 무용단 그리고 전 한국 서울 선교부장을 역임한 팔머 형제 내외 등 많은 신권 역원들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의 감리를 맡았던 이 호남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 민속 무용단에게 환영의 말씀을 하였고 최 옥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과 고 원용 동스테이크 부장 그리고 손 승은 동대문 스테이크 부장이 각각 간증을 전하였으며 내한중인 홍 병식 형제도 짧은 간증을 했다.

브리감 영 대학생들은 연사들의 말씀 중간에 피아노 독주와 독창·이중창 등으로 분위기를 온화하게 해주었으며, 귀환 선교사인 스티브 형제는 유창한 한국 말로 간증을 하였다. 중창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를 브리감 영 대학생들이 부르고 난 후 참석한 회원들이 답례로 합창을 하며 참석한 모든 회원들은 강한 형제 자매애를 느꼈다. \*



말씀하는 홍병식 형제

## 서울 스테이크 대회



말씀하는 애쉬튼 장로와 이 호남 장로

서울 스테이크는 5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청운 와드에서 가졌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애쉬튼 장로가 감리하였으며, 전 한국 서울 선교부장을 역임한 팔머 형제 내외와 서울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 그리고 브리감 영 대학교 민속 무용단원들도 참석하였다. 7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스테이크 신권 역원회에서는 애쉬튼 장로의 지명을 받고 스테이크 부장단과 이 호남 장로가 각각 짧은 간증을 전하였고 이어서 애쉬튼 장로는 교리와 성약 15편 16절을 주제로 말씀했다. 8일 오전 8시 30분부터는 서울 스테이크의 신권 역원 부부가 애쉬튼 장로 부부와 함께 특별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애쉬튼 장로는 신권 역원들과 부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특히 지도자들은 아내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10시부터 시작된 총회에서는 많은 회원과 구도자들이 가슴에 소속 와드, 지부의 표시가 되어있는 카네이션을 달고 참석하였다. 이날은 또한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연사들은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으며 특히 애쉬튼 장로는 서울 스테이크 회원들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

## 서울 신전 기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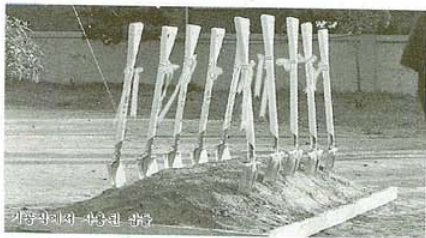
5월 9일은 한국 교회 역사상 중요한 날 중의 하나였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지 30여 년이 지난 이날 드디어 한국 서울 신전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이 모임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애쉬튼 장로를 비롯하여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고마쥬 장로, 브래드포드 장로 그리고 서울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 부산, 광주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 각 스테이크 부장단 등 많은 신권 지도자들의 부부와 선교사들이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서대문구 창천동에 세워질 한국 서울 신전은 83년 5월 9일에 착공하여 84년말에 완성될 예정이며, 일반 공개와 정초식은 85년 봄에 거행할 예정이다.

이날 말씀한 연사들은 신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

야 하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모든 의식을 받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애쉬튼 장로는 신전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강조하였다. 서울 신전 건립을 위하여 수고할 서울 신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호남 장로이며, 집행 서기로는 최 동현 부장 그리고 고문으로는 한 인상 장로가 수고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 신전 위원회 신전 위원들은 각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과 선교부장으로 구성되었다.

\*



기공식에서 사용된 장비

